



예전씨스템주식회사(대표이사 : 김용길)는 인천직할시 북구 산곡동 산98-15에 소재하는 회사로서 1989년 제 20회 한국 전자전람회 소재부분 신제품 경진대회에서 Ice-Sensor를 출품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최근 국내 최초로 습도센서를 개발하여 금년 9월부터 본격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회사 관계자가 밝혔다.

예전씨스템은 1988년 1월 12일 『인화단결, 창의개발, 일등주의』라는 경영이념으로 설립하여 첨단기술산업의 선두주자가 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으로 시작하여 불과 3년이 되는 지난 해 매출액 25억원이라는 실적을 쌓았고 현재 총업원 60여명에 이르고 있다.

주요생산품목은 Gas Boiler Controller P.C.B ASS 'Y', H. V. T(고전압발생기), Free-Voltage (110V/220V 전압 자동 절환장치), Ice-Sensor(얼음검지센서), 전자식 형광등용 안정기, 네온사인용 전자식 안정기 등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

위 품목중 전자식 형광등용 안정기와 네온사인용 전자식 안정기는 최근에 개발된 품목으로 전자식

형광등용 안정기의 경우 인버터방식의 전자회로에 의하여 재래식 안정기에 비해 35%이상 전력절감효과로 경제성이 높은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고 네온사인용은 전자식 안정기 P.W.M 방식을 채택 Switching 방식에 의해 동작함으로 전력소모를 37% 이상 절감시킬 수 있다. 특히, 네온관이 파손되거나 단선시 혹은 Short시에 출력전압을 차단하므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예전씨스템(주) 항후 전자부야의 흐름이 다른 종 소량생산시대로 Micom화를 실현하여 현재 개발품목을 Micom을 사용한 품목으로 대체시키고 있다. 이 업체의 이러한 기술개발 결과는 과감한 투자와 개발팀의 끊임없는 연구정신이 이끌어낸 결실이라고 본다.

동사는 지난 '89년 2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생산시설의 설비를 자동화하였고 CAD시스템을 도입하여 회로설계에서 기구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전산화를 실현하였다.

현재 3인 1대의 Computer 설비를 금년내 2인 1대로 늘리고 사내 전산망을 설치 각 부서간의 정보교



예전씨스템 임원진과 대화를 나누는 필자(우측 첫번째) ▲



생산조립라인 작업모습 ▲

환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통신망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예전씨스템에서 출원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실적은 얼음감지방법 및 장치와 절연형 형광등의 국제특허를 비롯 고밀도 다층 인쇄회로기판의 제조 방법등이 특히 출원중이며 그외에도 특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 품목이 몇가지 된다.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만큼 국내기업체인 삼성전자를 비롯한 후지카대원전기(주), 수국양행, 한국ENG 등과 거래를 맺고 있다.

예전씨스템(주)에서는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P. C. B Auto Tester와 동사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동작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Q·C장비와 JIG 검사기를 자체개발하여 Computer로 검사할 수 있어 제품의 불량률을 최소로 줄이는데 만전을 기하

예전씨스템(주)
김용길 대표이사 ▲

고 있다. 또한 전사원이 참여하는 분임조를 채택하여 5개조가 1주씩 분임조를 바꾸어 가면서 매일 토의시간을 갖고 월1회 발표회를 개최하여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전씨스템(주)은 복지후생에도 많은 투자를 하여 사원들의 사기를 높여 노사간의 갈등도 거의 없는 실정이며 전사원이 식사할 수 있는 구내식당, 여가를 이용하여 독서와 휴식을 즐길수 있는 기숙사 및 휴게실을 마련하여 사원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도록 세심한곳까지 경영자는 생각하고 있다.

이외에 연 2회 야유회와 체육대회를 열어 사원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산악회, 낚시회, 불링회, 조기 축구회 등 동아리 활동으로 각자의 여가선용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예전씨스템(주)는 '91년도 경영방침을 최우선 품질주의, 업무전산화 및 표준화, 원가절감 15%로 정하고 「내실 정착의 해」로 정하고 전사원의 한 가족화운동을 벌이는 등 새로운 사풍조성에 나섰다.

오늘도 예전씨스템(주)는 품질향상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 노사간의 혼연의 힘을 모으고 있다.

취재/홍보과 이상식